

家族計劃 및 出産力調査의 變動推移

金勝權*·孔世權**

이 論文에서는 지난 30年間 家族計劃事業을 支援하기 위해 추진해 왔던 전국규모의 調査研究를 검토하면서 앞으로의 方向을 論議하고 있다. 이제까지 家族計劃事業과 調査研究의 並行推進에서 調査研究는 事業 자체의 評價次元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事業이 目標로 했던 出産力이 人口의 代置水準 以下로 低下된 상황에서 調査研究는 家族計劃事業의 開發과 低出産으로 인한 派生問題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家族計劃事業 内部의 問題는 무엇이고, 人口의 老齡化와 女性의 役割變數 등 出産力 低下에 따른 諸般 問題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I. 研究背景

産業化에 따른 人口變動 要因중 유독 出産力에 대한 깊은 관심은 급속한 人口增加現象에 대한 抑制策을 出産調節에 둔다. 出産調節은 出産力과의 관련 變數중 結婚이나 流産과 같은 内容에서 보다 妊娠을 豫防하기 위한 避妊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避妊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한 事業이 家族計劃事業이었다(UN, 1990). 한국에서 家族計劃事業은 1960年代 初부터 保健組織網을 기초로 추진되었고, 이는 적은 子女數의 필요성을 인식케 하면서 원치 않는 妊娠은 避妊을 통해서 防止토록 하는 啓蒙教育과 避妊 서비스가 기본수단이 되었다(孔世權 外, 1980).

이러한 점에서 家族計劃事業의 目標는 避妊實

踐率을 높여 그 결과가 出産力 低下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人口增加率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假定에 기초를 둔 것이다. 비록 出産力이나 人口增加率은 避妊에 의해서만 변동될 수 없고, 避妊은 家族計劃事業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없는 制限點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점은 일종의 事業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이다. 즉 避妊을 통한 出産力 減少는 出産 當事者에게 少子女 價値를 인식케 하면서 원치 않는 妊娠은 避妊實踐을 통해 그 결과가 出産力 低下로 이어지도록 하는 순환의 고리가 잘 연결되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家族計劃事業인 것이다.

따라서 家族計劃事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事業組織內의 각종 機能이 有機性を 지녀야 하고, 또 事業의 調整은 評價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事業推進과 함께 評價事業을 並行

* 本院 主任研究員

** 本院 研究委員

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評價事業은 事業初期부터 事業進度和 問題點 把握은 물론 그 成果를 測定하는 등 광범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評價事業에서도 家族計劃事業을 종합적으로 把握하고 評價하기 위한 調査研究는 전국규모의 家族計劃實態 및 出産力調査였다. 家族計劃實態調査는 避妊을 중심으로 한 關聯 知識과 態度 및 行動 등에 관한 내용이 주축을 이루었고, 出産力調査는 事業成果를 分析하기 위한 내용이 主軸이 되었다. 특히 避妊에 관해서는 避妊方法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떤 經路로 알게 되었는지?, 몇명의 子女를 원하며, 앞으로 避妊을 할 것인지?, 避妊을 實踐中인 경우는 어떤 방법을 언제부터 실시하였으며, 問題點은 없는지? 등에 관한 내용이며, 出産力에 관해서는 언제 몇명을 낳았고, 앞으로 몇명의 子女를 더 갖기 원하는지? 또 出産力은 어느 정도 低下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이였다.

이러한 유형의 조사는 1960年代에 5회, 1970年代에 6회, 1980年代에 3회를 실시하여 지난 30年間 총 14회가 실시되었으며 이는 事業進展에 따라 그 內容과 方法面에서 다소 차이를 두어왔다. 특히 出産力은 1960年代 이후부터 대부분의 開發途上國이 人口增加 問題와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왔고, 이를 위한 研究開發도 급속히 진전되어 왔다. 따라서 家族計劃實態 및 出産力調査의 發展은 社會調査의 方法論 開發에 기여한 바가 크며, 이러한 發展過程을 되돌이켜 妥當性이나, 未備點 또는 補完點을 검토함은 앞으로의 研究開發에도 주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과거의 調査研究가 연대별로 어떤 차이를 두어왔고, 그러한 차이가 어떤 점에 緣由였으며, 未備點이 무엇인지는 이러한 유형의 研究開發에 주요한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II. 研究目的

本 研究에서는 家族計劃實態 및 出産力調査의 變化過程을 검토코자 한다. 이러한 研究檢討의 전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측면에 의미를 둔다. 먼저 出産力은 한 人口集團중 女性과 관련이 있고, 이들의 價値觀 내지는 出産行態를 變化시켜 低出産을 維持토록 함이 家族計劃事業이며, 이러한 事業을 評價하기 위한 방법이 調査研究였지만 그 결과는 人口增加抑制 뿐만 아니라 家族과 個人에게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社會改革的 意味를 內包한다. 특히 社會改革은 産業社會에서 政治的 改革만을 생각할 수 없으며, 社會變動을 誘導하고 이를 促進시킨 作爲가 비단 出産調節에 局限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한 時代의 人口問題 解決과 家庭生活 및 女性의 役割을 變化시켜 온 점은 「改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變化를 주도해 온 家族計劃事業과 이를 지원해 온 調査研究는 이와 유사한 다른 社會開發政策에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은 家族計劃事業이 주요 政府施策의 하나로 추진되면서 체계적인 調査研究를 並行하여 發展된 경우도 처음있는 일이며, 더욱이 그 결과가 세계적 성공사례가 된 점이 家族計劃事業을 지원해 왔던 家族計劃實態 및 出産力調査의 役割에 관심을 갖게 되는 점이다. 따라서 調査研究의 發展은 家族計劃事業評價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研究開發에도 주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社會調査는 社會現象을 파악하기 위해 考案된 틀(Framework)로 理論과 技術, 그리고 經驗을 土臺로 方法論 開發도 가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學問의 發展은 물론 政策開發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同研究는 이제까지의 調査研究의 發展過程을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關聯研究의 접근영역을 모색하

는데 초점을 두었다.

III. 分析資料

本 研究에서 이용된 자료는 1960年代 이후 1990년까지 總 14회에 걸쳐 이루어졌던 전국규모의 家族計劃實態 및 出産力調査 內容과 結果 報告書에 기초를 두었다. 일반적으로 社會調査는 調査目的에 따라서 測定道具나 方法을 달리하고 있지만 이제까지의 家族計劃實態 및 出産力調査의 目的은 避妊과 出産實態의 파악에 중점을 두었고, 調査方法은 調査票를 기초로 한 調査員에 의한 面接調査가 이루어진 것이 공통점이다. 또 調査主管을 주로 家族計劃事業과 관련된 專門研究機關인 保健社會部 家族計劃評價班, 家族計劃研究院, 韓國人口保健研究院 등에서 실시함으로써 시대별로 事業變遷에 따른 調査內容이 事業과 有機的 關係를 맺어 왔다. 따라서 本分析은 지난 30年間 調査內容이 年代別로 어떻게 변해왔고, 그러한 變化가 왜 있게 되었는지를 검토하면서 아울러 그 結果가 어떠한 意味가 있는지를 분석코자 한다.

IV. 分析內容

1. 調査의 特徵

1) 1960年代 調査

한국에서 家族計劃實態 및 出産力調査는 1960年代 부터 家族計劃事業 추진과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1960年代는 人口增加 現象에 대한 認識과 出産調節의 價値共感帶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家族計劃事業이 國家事業으로 채택된 그 자체가 뜻밖의 일이었으며, 이는 일부 知識層의 提案과 國家의 開發意志가 맞물려 졌던데서 動機를 찾아볼 수 있다(大韓家族計劃協會, 1990; 104~112). 이러한 점에서 家族計劃事業은

社會改革的 意味를 내포한다. 그러나 비록 事業이 政策으로 채택되었다 하더라도 추진을 위한 先例나 經驗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事業遂行을 위해서는 學界의 諮問과 民間團體의 協助가 필요했으며, 社會的 共感帶나 接近方法을 파악하기 위한 調査研究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家族計劃事業 推進에는 먼저 示範事業 形態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示範事業을 土臺로 얻어진 經驗과 推進方法은 전국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家族計劃示範事業은 都市型和 農村型으로 구분되었고, 都市型은 서울대학교가, 農村型은 연세대학교가 主管했으며, 전국적인 사업을 評價하기 위해서 家族計劃事業主務部署인 保健社會부의 「家族計劃評價班」에서 調査評價 業務를 전담했다. 그러나 家族計劃事業에 대한 調査評價는 사업 자체가 開拓段階에 있었듯이 調査研究도 基礎段階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의 단순한 實態把握만이 이루어졌다.

1960年代에 최초로 이루어진 「全國家族計劃實態調査」는 1964년에는 保健社會部가 主管했고, 그후 1965年, 1966年 및 1967年에도 비슷한 調査가 家族計劃評價班의 主管下에 이루어 졌다(保健社會部, 1965, 1966, 1968). 이들 調査는 대부분 避妊對象인 만15~49歲의 既婚婦人 약 3,500명을 對象으로 家族計劃의 知識, 態度 및 實踐(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 KAP)에 관한 內容과 出産行態(Fertility Behavior)와 관련된 內容이 중심이 되었다. 이는 家族計劃事業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啓蒙教育이 이루어져야 하고, 피임서비스는 어떻게 전개해야 하느냐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調査內容은 調査對象의 個人特性으로 年齡, 學歷, 結婚, 職業, 宗教 등의 변수를 다루었고, 出産現況은 조사시까지의 出生

兒數, 死亡兒數, 人工妊娠中絶經驗數 외에 理想子女數, 追加希望子女數 등을 다루었으며, 避妊事項은 避妊知識과 實踐樣相, 避妊實踐時期 및 中斷實態 등을 다루는 총 30여개 項目이 調査되었다.

그러나 1960年代 末期부터 調査內容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즉 家族計劃事業이 進전됨에 따라서 그 成果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出産力調査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1967年 調査는 調査名稱을 「全國 家族計劃 및 出産力調査」로, 1968年 調査는 「全國 出産力調査」로 하였다. 특히 1968年 調査에서는 調査對象도 크게 늘려 약 8,800家口에 居住하는 약 7,500名의 婦人을 調査하였다(表 1 參照). 調査內容도 1967年 調査부터 調査內容에 포함된 家口員全體의 特性을 파악하기 위한 家口事項을 더욱 구체화 함과 아울러 對象婦人의 出産歷을 時系列的으로 파악하기 위한 出産記錄票를 추가하였으며, 그 외에도 子宮內裝置 避妊(루우프)의 受容實態, 中斷 및 副作用 등을 파악하기 위한 內容을 포함해 전체 調査項目이 50여 項目을 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調査도 避妊方法의 量的 普及과 그 結果가 出産力 低下로 이어지는 事業效果를 파악하기 위한 점에 局限되었고, 出産力 決定에 影響을 미치는 人工妊娠中絶이나 結婚과 같은 內容은 具體的, 體系的으로 다루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 1970年代 調査

1960年代 調査가 家族計劃實態 把握과 이를 통한 事業接近(Program Approach)에 중점을 두었다면 1970年代 調査는 그간의 事業成果를 파악하고, 事業方向을 모색하기 위한 점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여진다. 調査題目에 걸맞게 調査內容도 出産力에 관한 다양한 內容을 포함하였다. 調査規模의 측면에서도 1960年代의 調査는 既婚婦人 약 3,000~4,000名을 對象으로 했으나 1970

年代 調査는 出産力을 측정하기 위한 적정규모로 既婚婦人 5,000名 이상을 對象으로 했고, 調査內容에서도 出生 및 避妊의 漏落을 防止하고 各事件別 間隔(Interval)을 명확히 하기 위해 家口調査(Household Survey)와 妊娠歷(Pregnancy History) 및 避妊歷(Contraception History)記錄票를 이용하는 등 方法論 開發도 특징을 지닌다고 하겠다.

특히 1971年 調査는 家口事項에서부터 妊娠 및 出産記錄(Pregnancy and Birth History), 人工妊娠中絶, 結婚 및 子女觀, 家族計劃에 관한 知識, 態度, 實踐 등을 다루었고, 1974年 調査는 世界出産力調査(World Fertility Survey)의 一環으로 실시되면서 1971年 調査內容 外에도 結婚歷(Nuptiality)을 구체화시키고, 女性의 役割 특히 女性의 結婚을 前後한 就業이 추가된 점, 그리고 授乳(Breast Feeding) 實態와 出産計劃(Fertility Plan)을 포함시킨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유형의 조사는 1973年과 1976年, 1978年, 그리고 1979年에도 계속 실시되어 1970年代 調査는 出産力 研究의 集大成을 이루면서 家族計劃事業을 지원해 왔다.

調査員 活用の 경우 1960年代 調査가 주로 一線 保健要員을 調査員으로 活用해 왔던 것과는 달리 1970年代 調査는 별도의 調査員을 채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調査를 담당토록 하였다. 이러한 점은 家族計劃事業이 避妊의 量的 普及에 중점을 두게 되면서 一線 保健要員을 調査員으로 活用하였을 경우 調査上 偏見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해진 것이다. 또 調査運營도 1960年代 調査는 調査員이 각각 調査地域을 담당하여 調査를 실시하는 「個別接近」이 이루어진 반면 1970年代 調査는 調査員 4~5名이 한 팀(Team)이 되어 팀별로 指導員(Team Leader)을 두고 이들로 하여금 調査地域別 調査를 실시한 「팀 接近(Team Approach)」이 이루어진 점이다. 그러나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Surveys in 1960~1969
 1960年代 全國 出產力 및 家族計劃實態調查의 特性

Year	1964	1965	1966	1967	1968
Studies	National* FP Survey	National FP Survey	FP & Eval. Survey	National FP & Fert. Survey	National Fert. Survey
Objects					
- Households(N)	-	-	-	-	8,774
- Ever-married women (years, N)	15~54yrs 4,008	15~44yrs 3,445	15~44yrs 3,368	15~49yrs 3,624	15~49yrs 7,477
Methods	Interview by FP field workers & FP related workers		Interview by family planning field workers		
Contents(items)**					
1) Household Characteristics	2	2	2	13	6
2)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2	3	4	4	11
3) Marital History	2	2	2	2	2
4) Pregnancy & Fertility	1	9	12	6	6
5) Contraception	1	11	13	14	31
6) Induced Abortion	2	2	3	2	-
7) Attitude to Children	1	2	1	1	1
8) FP Information	-	-	1	2	-
9) Others	-	-	-	1	-

* This is the comprehensive family planning preparatory survey conducted by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with the conciliation of Economic Planning Board and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 Household Characteristics :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nd infant mortality rate are main items ; Informations of whole household members, recent birth and death have been added since 1967 survey.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 Level of education, religion and occupation are main items ; Economic variables such as living status and ownerships of home appliances are added in 1968.

Marital History : Age at first marriage and duration of marriage.

Pregnancy, Fertility : Total number of pregnancy, abnormal delivery(stillbirth, miscarriage, induced abortion), normal delivery, number of currently living children and fecundity are main items ; in 1968 pregnancy-birth history chart are added for the first time in Family Planning survey.

Contraception : In the beginning attitude and knowledge of family planning and contraception are main items ; as deep knowledge on family planning field is required, the items are extended its scope to side effects of contraception, state of stop using contraception and contraceptive-failure pregnancies.

Induced Abortion : Experiences on induced abortions, date etc.

Attitude to Children : Ideal number of children and additional number of children to have etc.

Family Planning Information : simple knowledge on family planning.

Others : In 1967, pre- and post-delivery conditions of the last child are collected.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Surveys in 1970~1979
1970年代 全國 出產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의 特性

Year	1971	1973	1974	1976	1978	1979
Studies	National Fert. Survey	National FP Survey	National Fert. Survey	National Fert. & FP Survey	National FP & Fert. Survey	National FP Survey
Objects						
- Households(N)	6,860	3,160	20,937	8,160	5,069	19,788
- Ever-married Women (years, N)	15~54yrs 6,285	15~49yrs 2,333	15~49yrs 5,417	15~49yrs 6,020	15~49yrs 3,603	15~49yrs 14,303
- Unmarried Women* (years, N)	-	18~27yrs 545	-	-	-	-
Methods	Interview by professional women interviewers					
Contents(items)**						
1) Household Characteristics	12	6	43	29	5	18
2)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22	26	56	12	3	3
3) Marital History	4	2	35	5	2	2
4) Pregnancy & Fertility	22	5	50	14	11	16
5) Contraception	24	58	77	54	26	16
6) Induced Abortion	10	10	7	5	3	2
7) Attitude to Children	4	2	17	7	4	-
8) FP Information	3	15	9	10	-	-
9) Others	-	4	50	-	-	2

* For those were unmarried, 35 questions are asked. Major questions are attitude on marriage and children, attitude and knowledge on family planning.

** Household Characteristics : Types of households, informations on household members and death are main items. More detailed informations of household members are collected in 1974 survey than before.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 Place of birth, main residential area, level of education and participation on various social activities are added.

Marital History : The main items of surveys in 1960s, are age at first marriage and duration of marriage, (which appear on surveys in 1970s). Later on items such as marital status, number of marriages, and previous marital status(in case of divorce, separation, widowed) are added.

Pregnancy, Fertility : More careful approaches than the last decade are performed. Pregnancy-birth history chart are added.

Contraception : More detailed questions are asked. Items are the characteristics, knowledge and experiences on each contraceptive methods. Number of questions are increased.

Induced Abortion : Attitude on induced abortion are the main item. Since 1978 experiences of induced abortions and place of operation are added.

Attitude to Children : Ideal number of children.

Family Planning Information : Contact with family planning field workers, exposure to family planning materials are main items.

Others : Support on parents, status of occupation and place of birth are added in 1973, in 1974 and in 1979 in order.

어떤 형태의 조사가 調査의 效率姓을 기하고 어떠한 長點과 短點이 있는지는 별도의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 알 수 없다.

3) 1980年代 調査

1980年代 調査는 3年 間隔으로 3회에 걸쳐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과거 20年間的 調査經驗과 內容을 踏襲한 形態로 이루어 졌다. 이러한 점은 調査內容이나 方法이 時系列的으로 반드시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事業自體나 調査研究의 類型이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1980年代 調査는 調査名稱을 “家族保健實態調査”로 바꾸면서 母子保健事業을 評價하기 위한 調査項目을 포함했고, 家族計劃事業도 社會制度的 接近이 試圖되면서 弘報나 制度에 대한 內容을 포함시킨 점이 특징이다.

특히 1980年代의 調査는 出産力이 급변하는 가운데 조사결과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았다. 대부분의 젊은 夫婦는 避妊을 實踐(조사시 有配偶可妊婦人中 약 3/4이 避妊實踐中임)하고, 두 子女를 가지려는 추세가 普遍化되면서, 合計出産率(Total Fertility Rate : TFR)은 1982년에 婦人當 2.7에서 1984년에는 2.1로, 그리고 1987년에는 1.6으로 低下되었다. 이러한 점은 종래 家族計劃事業의 定型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다른 形態로의 轉換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事業轉換을 지적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구체적인 代案提示가 未洽했음은 또 다른 차원으로의 改革이 쉽지 않았음을 생각할 수 있다.

이상의 것을 종합해 볼 때 1960年代 調査가 事業接近(Program Approach)에, 1970年代 調査는 事業效果(Program Effect)에, 1980年代 調査는 事業定着과 類似事業과의 統合接近(Integrated Approach)에 중점을 두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특히 家族計劃事業과 調査研究가 並行推進되면서 事業開發이 이루어진다는 調査

研究가 객관적 측면에서 評價만을 위주로 하지 않고 사업내부의 한 機能으로 役割을 담당해 왔던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사업자체를 調査研究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또 調査研究를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해 온 점은 앞으로의 類似事業에도 참고할 점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이 家族計劃實態 및 出産力調査의 特徵과 內容을 年代別로 구분해 살펴볼 때 同 調査는 出産現象과 이의 조절수단인 避妊의 內容을 중심으로 하지만 調査回數가 거듭되면서 그 範圍의 擴大와 內容의 多樣性을 엿볼 수 있다. 즉 1960年代 調査는 避妊과 관련된 內容에 중점을 두었다면, 1970年代 調査는 出産力과 관련된 內容에 중점을 두었고, 또 1980年代 調査는 避妊·出産, 母子保健 등 일련의 再生産 過程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점은 調査名稱이 「家族計劃實態調査」에서 「出産力調査」로, 또 「家族保健實態調査」로 바뀐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調査範圍의 擴大와 內容의 多樣化는 그것이 學問的인 側面에서 보다 事業變遷에 따른 영향이 더 크다고 하겠다. 즉 家族計劃事業이 避妊서비스에 중점을 두었을 때는 調査內容도 서비스 擴大 및 質的 管理에 초점을 두었고, 事業成果에 관심을 두었을 때는 避妊效果인 出産力을 測定하기 위한 점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다. 즉 調査研究와 事業變遷은 相互補完關係를 維持하면서 調査研究가 事業을 支援하고 事業發展이 調査開發에 도움을 주어 온 것이 그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調査研究는 전국규모의 家族計劃實態 및 出産力調査 외에도 家族計劃事業을 開發하기 위한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그것은 1960年代에 子宮內避妊(루우프)에 관한 追求調査, 먹는피임약 受容者 追求調査, 1970年代의 家族計劃要員 및 施術醫師實態調査, 軍隊 및 零

Table 3. The Characteristics of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Surveys in 1980~1989
 1980年代 全國 出產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의 特性

Year	1982	1985	1988
Studies	National Family Health Survey	National Fert. & Family Health Survey	National Fert. & Family Health Survey
Objects			
- Households(N)	7,375	7,415	11,864
- Ever-married Women (years, N)	15~49yrs 5,371	15~49yrs 8,421	15~49yrs 7,792
Methods	Interview by professional women interviewers		
Contents(items)*			
1) Household Characteristics	15	29	26
2)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10	11	12
3) Marital History	4	12	14
4) Pregnancy & Fertility	18	26	38
5) Contraception	12	46	60
6) Induced Abortion	1	13	13
7) Attitude to Children	20	16	13
8) FP Information	-	33	23
9) Others	57	12	29

* As fertility surveys continue questions on pregnancy and fertility have developed systemetically. Especially, questions which may indicate future directions of future family planning project—fertility and contraception plan and attitude towards children of those eligible women—are strengthened.
 Number of items which evaluate effects of family planning education and campaign are increased. Items on maternal and child health such as pre- and post- delivery examination have appear since 1982 survey. Also, in 1982 the study “application of health education materials” are surveyed simultaneously.

細地域과 같은 特殊集團의 家族計劃實態調查, 家族計劃弘報에 관한 實態調查 등, 그리고 1980年代의 人口問題 전반에 걸친 각종 調査나 家族計劃運營改善에 관한 調査 등이 그것이다. 또 이러한 각종 調査研究는 일정한 기준을 세워 놓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대개는 時宜性을 위주로 그때 그때 관심을 가졌던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調査結果는 비슷한 事業指標의 變化趨勢만을 제시함으로써 政策建議도 사업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 간다는 식의 추상적인 내용을 되풀이

해 온 점을 각종 報告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調査研究는 目的에 따른 調査內容 設定에 일정한 概念的 틀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調査內容을 調査目的과 附合되는 方向에서 설정해야 하고, 그래야만 調査結果의 分析에서 의도했던 目標을 糾明 내지 導出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家族計劃實態調查가 避妊實踐率을 提高시키기 위한 방안에 목적이 있다면 避妊知識 및 行動變化(Behavior Changes)와 관련 내용 및 避妊實踐을 誘導하기 위한 社會·心理·醫學的 側面에 초점을 두게 되며, 또 出產力調査는 出產決定

要因(Freedman, 1965; Davis, 1956)을 測定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이와 관련된 社會經濟的 變數와 制度 내지는 規範變數, 個人 및 家族의 價値觀變數, 出産要因 變數(結婚, 避妊, 人工流産 등의 出産關聯 變數)를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조사해야 하느냐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모든 조사가 이와 같은 概念設定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의 概念定立과 調査內容에서 用語定義의 標準化는 精度 높은 調査研究를 가능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록 1960年代 調査는 概念定立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가 추진되었지만 1970年代 調査부터는 概念化의 노력이 顯著했음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世界出産力調査(World Fertility Survey)의 일환으로 실시된 1974年 調査는 調査內容을 設定하는데 家族計劃 모듈(Family Planning Module)뿐만 아니라 人工流産모듈(Abortion Module), 經濟모듈(Economic Module) 및 地域社會모듈(Community Module) 등을 定立하여, 이러한 副次的 모듈이 전체 出産力모듈(Fertility Module)의 內容을 구성하는 調査體系가 이루어진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1980年代 調査는 出産力과 家族計劃 및 母子保健 등의 統合調査가 이루어지면서도 이들 각각의 調査特徵과 部門間 相互關聯性에 관한 구체적인 概念化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즉 基本骨格은 종전에 실시된 유사한 조사의 內容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최근의 家族計劃事業 方向에 따라 修正되어야 하는 몇개 항의 內容만을 補完하거나 필요에 따라 追加하였을 뿐이었다.

결과적으로 家族計劃實態 및 出産力調査는 時代別, 또는 調査別로 거의 비슷한 目的을 두고, 비슷한 形態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를 기초로 한 時系列分析은 특정 人口指標나 事業指標에 局限되고, 보다 다양한 內容分析은 이루어지지 못했

다. 이러한 이유중 하나는 조사의 長期計劃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用語定義의 差異에 의한 質問形態의 差異 뿐만 아니라 調査의 概念化가 未洽했던 점도 들 수 있다. 한 예로서 理想子女數나 子女選好性 등 價値觀에 관한 調査項目은 어떤 形態로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應答結果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質問의 標準化가 요구되며, 또 한번 設定한 質問形態가 계속 踏襲되어야만 時系列分析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調査研究를 實態調査에 局限한다 하더라도 어떤 形態로, 어떻게 調査하며, 調査結果를 어떤 側面에서 어떻게 分析할 것이냐는 점을 주요시 되는 것이다.

2. 調査結果

家族計劃實態 및 出産力調査의 結果를 요약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들 調査報告書의 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1960年代 調査報告書는 調査對象 婦인이 어느 정도 避妊方法을 알고, 얼마나 避妊을 實踐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避妊知識과 避妊實踐간의 交叉分析(Cross-analysis)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事業推進 方向을 모색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 즉 避妊知識이 없어서 避妊을 實踐하지 못하는 對象(-, -)에게 啓蒙教育을 실시하고, 避妊實踐中인 對象(+, +)에게는 서어비스 管理에 중점을 두고, 避妊을 원하면서 未實踐中인 對象(+, -)이나 避妊知識이 없으면서 避妊實踐을 하는 對象(-, +)에게는 서어비스 및 啓蒙接近을 試圖한다는 점을 전제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둘째, 1970年代 및 1980年代 調査報告書는 家族計劃事業 成果로 나타나는 出産力低下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家族計劃事業이 안고 있는 內在的 問題는 무엇인지를 제시함으로써 事業 自體의 開發과 새로운 事業方向을 摸索하려는데

Table 4. The Relationships between Knowledge and Practicing Contraception
 避妊의 知識과 實踐과의 關係

Knowledge on Contraception	Know Don't Know	Practicing Contraception			
		Do		Don't	
		+	+	+	-
		-	+	-	-

Classifying Object

Those who never practiced contraception (-,-) : provide education

Those who currently practice contraception(+,+) : supervising services

Those who demand services on family planning(+,-) : Approach through providing services

Those who demand knowledge on family planning(-,+) : Approach through education

초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점은 이들 報告書가 出産力 變化의 構造分析과 이의 영향요인으로서의 避妊實踐, 人工流産 및 結婚樣相에 대한 분석이 곁들여진데서 지적될 수 있다. 또 事業現況 및 問題點 分析은 事業改善과 새로운 接近方向을 찾으려는데 초점을 두었고, 이것은 어떤 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事業體系內에서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都市零細民 事業의 推進과 人口教育 프로그램의 開發, 社會制度(誘引 및 規制制度)의 측면에서 低出産을 誘導하기 위한 政策提言 등이 이들 보고서의 주요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세째는 방대한 調査票의 內容에 비추어 볼 때 分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생각할 수 있다. 한 예로서 1960年代 末期부터 調査票는 家口事項 調査를 비롯해서 妊娠歷을 調査함으로써 調査內容이 增加되었다. 물론 家口事項 調査는 避妊 및 出産對象者를 파악하는데 기초를 두었고, 妊娠歷 調査는 妊娠 및 出産의 漏落과 錯誤를 防止하는 데 목적을 두었었지만 이처럼 큰 비중을 두어왔던 調査內容에 비해서 分析結果가 未洽했던 것은 調査票 設計에서 부터 調査內容과 分析範圍를 再考해야 할 점이다. 다시 말해서 왜 그러한 調査項目이 필요했고, 그 項

목이 무엇을 뜻하며, 어떻게 利用할 것인지의 事前檢討가 未洽했기 때문에 調査만 하고 分析에서 重要하게 다루어지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전혀 分析對象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네째는 報告書 內容이 전반적으로 避妊實踐率의 增加와 出産力의 減少趨勢를 時系列的 指標比較를 통해 다루는데 그치고, 그 要因 내지 因果關係에 대한 深度있는 分析이 未洽한 점이다. 즉 避妊實踐率의 增加, 出産力의 低下, 人工妊娠中絶率과 子女觀의 變化 등이 주요 내용이었으며, 그러한 변화가 어떤 要因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어떤 意味를 지니며, 또 앞으로는 어떤 影響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分析이 未備하였다. 따라서 研究結果를 土臺로 한 改善策이나 政策的 代案도 抽象的인 內容으로 立關될 수 밖에 없었고, 그러한 內容이 각 보고서에 반복해 제시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처럼 家族計劃實態 및 出産力調査는 지난 30년간 家族計劃事業과 더불어 동 사업이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문제를 내포하며 또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해 왔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事業開發을 위한 調査研究는 가장 基礎的 側面에서 立關해 왔을 뿐 調査研究의

Table 5. Problems and Policy Recommendations Presented on each Summary Report in 1970~1988
 '70~80年代 調査報告書에 提示된 事業 問題點 및 政策建議

Year	Problems	Policy Recommendations
Surveys in 1970~19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y preference is the major obstacle to fertility decline. - Contraception current-practicing rate is lower than ever-practicing rate. - People prefer to use various contraceptive methods than Loop, which government recommended to. - Side-effect and failure of contraception caused increasing numbers of unwanted pregnancies. - Induced abortion is still popular in spite of extended contraceptive services. - Contraceptive service networks did not reach the target groups effective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tending target groups to the teenagers in education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 Developing various programs on education is needed. - Extending educational activities to prevent induced abortion is needed. - Preventing side-effect of contraception and continuous supervision is required.
Surveys in 1980~1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gnancies due to the failure of contraception increased. - For stop having children sterilization has increased. - Although government supplied contraceptive devices free, people more liked to buy them at the drug stores at own expen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 the quality control(than merely quantity control) continuous supervision of current contraceptive users is needed. - Extending health insurance coverage to contraceptive services ; Enhancing commercial networks selling contraceptive devices and giving tax benefits to commercial networks is recommended.

Table 6. Major Indicators on Fertility and Contraceptive Practice Rate Reported on Surveys in 1966~1988
 主要 調査年度別 出産力 및 避妊實踐의 主要 指標 變化

Major Indicators	1966	1971	1976	1982	1988
◦ Ideal No. of Children(person)	3.9	3.7	2.8	2.5	2.0
◦ No. of Currently Living Children(person)	3.4	3.4*	3.2*	2.8	2.0
◦ Total Fertility Rate(person)*	5.4	4.7	3.2	2.7	1.6
◦ Rate of Women Currently Practicing Contraception(%)	20.1	25	44.2	57.7	77.1
◦ Rate of Women not Accepting Contraception(%)	72.8	56	37.1	19.3	11.5
◦ Rate of Women Experiencing Induced Abortion(%)	13.5	26	39	49.6	52

Source : Data were collected from currently married women aged 15~44, except *

* Total Fertility Rate was collected from currently married women aged 15~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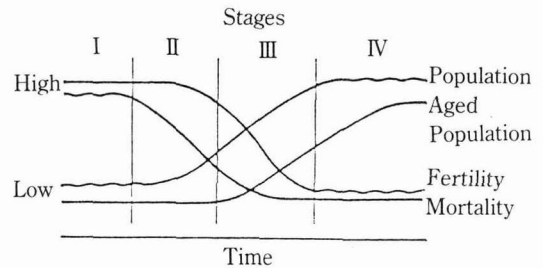
自體開發에는 未洽한 점이 없지 않았다. 특히 調查研究는 막대한 資金과 人力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學界는 쉽사리 추진할 수 없었던 것을 政府豫算으로 研究機關을 설치하고, 전국규모의 調查研究를 반복할 수 있었던 점이나 政府 및 學界의 관심과 협조가 컸던 점에 비해서 조사 연구의 분석이 다양화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또한 同 調查研究는 國內外 學界의 諮問이나 直接參與가 研究開發에 도움을 주어 왔지만 보다 근본적인 점은 人口增加問題가 地球上의 問題로 제기되면서 이 분야의 研究開發은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데서 경쟁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크다고 하겠다.

V. 綜合檢討

韓國에서 家族計劃實態 및 出産力 調查研究는 家族計劃事業과 함께 相互補完 關係를 유지하면서 발전해 왔다. 즉 事業開發을 위해서는 調查研究가 요구되었고, 調查研究는 事業發展과 함께 사업에서의 다양한 욕구에 의해서 方法論 開發이 이루어져 왔다. 이처럼 調查研究를 기초로 事業開發이 이루어진 國家政策은 家族計劃事業이 최초로 先例가 되었고, 그 결과는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出産力이 人口代置水準 以下로 低下되면서 家族計劃事業은 세계적 성공사례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家族計劃事業이 出産調節만을 위해 少子女 價値觀 및 行動變化의 誘導와 避妊서비스에 중점을 둔 것이고, 調查研究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人口社會學的 側面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결과는 國家次元의 人口問題의 解決과 個人 및 家族生活에 엄청난 變革을 가져오게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出産力 變化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뒤따르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人口轉換理論(Cowgill, 1949)

은 人口變因과 社會變遷이 맞물려지는 가운데서 일정한 人口成長의 秩序를 나타냄을 기초로 한다. 여기서 人口의 成長이란 量的增加만을 뜻하지 않으며, 時間의 經過와 함께 外的 또는 內的인 變化를 의미한다. 傳統社會에서는 人口變因이 多産多死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量的인 停滯와 構造的 未成熟形態를 나타내었지만 産業化 初期는 多産少死 形態를 유지하면서 量的 增加와 構造的 成熟期를 나타내고, 또 産業化 成熟期에는 少産少死 形態를 유지하면서 다시 量的 停滯와 構造的 老化期를 맞는 과정을 거치게 됨을 의미한다(圖 1 參照).



Source : Robert Binstock and Ethel Shanas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2nd ed., Van Nostrand Reinhold Co., Inc.,
1985.

Fig. 1. The Theory of the Demographic Transition
人口轉換 理論

이러한 過程에서 人口問題의 認識과 解決策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달리었던 것이다. 人口問題는 원래 人口自體가 問題가 되는 것이 아니라 人口集團과 生存條件과의 相對的 關係에서 제기된다. 生存條件이 좋지 못했던 傳統社會는 死亡力이 문제시 되었고, 이에 따른 産業化와 保健醫療의 發展이 이의 解決策이 되었다. 그러나 死亡力이 低下되고, 出産力과의 隔差現象이 人口增加 問題로 나타나면서 出産調節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死亡力과 出産力이 低下되고 人口增加가 安定趨勢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는 人口問題가 人口 自體의 調整에서 보다 이러한 인구가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즉 삶의 質的인 問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인구에 대한 問題의 認識과 解決策은 人口와 生存條件을 독립적으로 생각하면서 人口를 生存條件에 맞도록 調整하거나 生存條件을 人口現象에 따라서 調整하는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했던 점이 人口政策이었던 것이다. 즉 死亡力 改善이나 出産力 調節은 人口 自體를 從屬 變數로 하여 이를 調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教育을 통한 人力開發, 産業化에서 雇傭創出, 그의 食糧, 住宅, 環境 및 福祉政策 등은 人口 自體를 獨立變數로 하여 對應策을 講究하는 점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人口接近은 人口自體의 調整에서 보다는 人口現象에 따른 對應側面이 요구되는 것이며, 이러한 對應策은 모든 國家政策이 이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家族計劃事業은 본래의 취지대로 出産力과 관련된 領域에서 事業이나 研究開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本 論議는 성공적인 家族計劃事業과 이를 지원해 왔던 調查研究를 再評價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事業과 活動이 이제 어떤 점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있다. 즉 出生과 死亡의 不均衡으로 나타난 人口增加問題를 위해서 出産調節이 불가피했고, 이를 위한 家族計劃事業을 開發하기 위해서 調查研究가 필요했던 것처럼 低出産 狀況에서 問題는 무엇이고, 그러한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低出産은 먼저 人口構造의 老齡化를 촉진시키면서 老人扶養問題가 야기되고, 出産 當事者인 女性에게 出産 및 養育負擔을 경감시키면서 役割轉移를 초래한다. 또 이러한 점은 家族規模의 縮小와 生活週期를 變化시키는 등 家族의 變化를 촉진시키면서 社會構造의 變

화와 함께 家族問題가 뒤따른다.

이처럼 低出産은 家族의 外形의인 形態 뿐만 아니라 內面的인 生活週期나 機能과 役割, 그리고 關係 등이 함께 變化하면서 家族生活 自體가 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變化는 家族의 모든 측면이 한꺼번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측면은 변하고, 어떤 측면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不均衡的 變移가 家族問題로 제기되며, 그러한 問題가 社會問題化됨을 엿볼 수 있다(孔世權 外, 1987, 1990; 아시아人口開發協會, 1989). 이러한 家族問題를 획일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機能과 役割의 多樣化와 分化, 解體 등에서 그 결과가 家族生活 自體를 어렵게 하는 점이 된다. 즉 生計活動과 便宜性에 따라 分居形態가 늘어나고, 別居, 離婚, 死別 등이 缺損家族을 增加시키면서 子女의 養育과 教育, 그리고 老人扶養을 어렵게 한다. 家族問題는 이러한 점 뿐만이 아니다. 다양한 社會機能과 適合性에서 問題도 다양해 이는 巨視的인 人口增加問題보다도 더 심각한 社會問題가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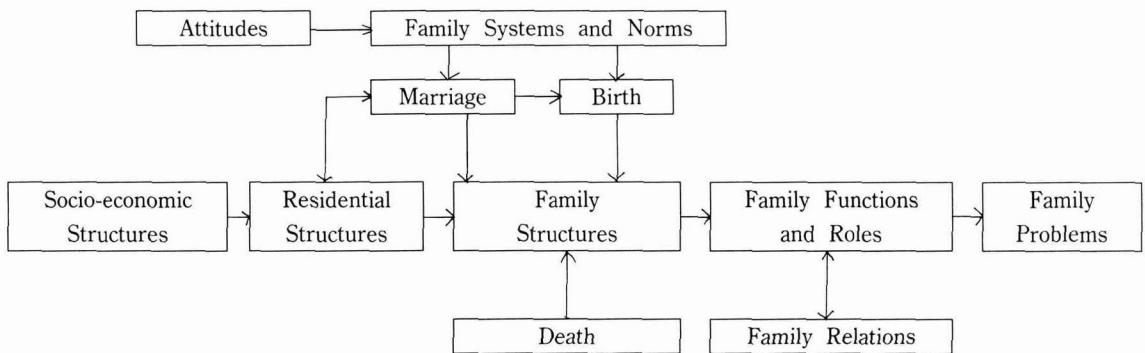
그러나 오늘날 家族計劃事業과 이를 支援해 왔던 調查研究는 出産調節이란 形態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 있다. 出産調節은 성공적이라는 명목으로 豫算削減이 質的인 접근 조차 어렵게 되었고, 또 調查研究는 出産調節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의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家族計劃事業이 社會變遷과 低出産으로 인한 전반적인 문제를 포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家族計劃事業은 본래 出産調節을 기초로 個人과 家族問題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던 것처럼 低出産에서의 問題를 중심으로 豫防과 治療, 그리고 自體의 發展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家族이 社會構成의 기본단위로 家庭生活에서 「삶의 質」이 人口資質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다. 따라서 子女의 養育이나 教育, 青少年의 性問題, 老人과

여성문제 그리고 家族의 解體나 健康問題 등은 오늘날 家族計劃事業이 접근해야 할 주요한 領域이 될 수 있다.

家族計劃事業을 놓고서 이 事業이 앞으로 어떻게 接近되어야 하는지는 個人에 따라서 얼마든지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家族計劃事業과 調查研究는 이제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政府의 家族計劃事業 方向과 동일한 次元에서 생각해야만 한다. 調查研究를 통한 事業開發과 事業方向에 따른 調查研究가 不可分의 關係를 이루면서 事業을 誘導하고 調查研究도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日本의 경우도 1950年 이후 出産調節과 관련해 全國 家族計劃輿論調查(Population Problems Research Council, 1990)가 한 新聞사에 의해 2~3年 間隔으로 계속 실시됨으로써 時代의 人口問題와 家族政策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韓國의 家族計劃實態 및 出産力調査도 그 나름대로의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調查研究는 이제 避妊實踐率이나 出産水準 測定에만 국한될 수 없고, 家族計劃事業이 안고 있는 問題가 무엇이

고, 앞으로 어떠해야 하는지의 方向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調查研究가 나름대로 目的과 當爲性이 전제되듯 오늘날 家族計劃과 關聯研究도 現實的 및 未來指向的인 目標과 當爲性を 전제로 調查研究의 再定立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調查研究는 事業評價의 次元을 넘어서서 事業方向을 提示하고 그러한 方向에 따른 研究接近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調查研究는 出産調節의 概念에서 總體的인 家族의 概念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여기서 從屬變數로 삼은 家族問題는 私的인 側面에서 보다 社會·人口學的인 側面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家族의 機能과 役割, 家族關係, 그리고 價値觀 등이 生活의 安定이나 삶의 質과 관련된 內容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出産力 低下에 따른 人口의 老齡化와 家族機能 및 役割의 多樣化에 따른 核家族化 現象이 子女의 養育과 教育, 그리고 老人 扶養에서 문제가 되고, 또 缺損家族, 家族解體 등이 家族의 機能과 役割, 家族關係, 價値觀, 結婚, 出産(避妊 포함) 및 死亡 등과 밀접한



Note : Residential structures means residential environment and conditions ; Family structure means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family and family life cycle ; Family functions mean functions of reproduction, support, and production.

Fig. 2. Family Planning Related Contents
 家族計劃 關聯 研究內容

관련을 갖는다는 점에서 인 것이다.

VI. 要約 및 結論

전국규모의 家族計劃實態 및 出産力 調査는 1960年代 이후 家族計劃事業 推進과 함께 總 14회가 이루어지면서 事業과 研究가 有機的인 關係를 갖고 발전해 왔다. 특히 1960年代 調査는 避妊普及 側面에 중점을 두었고, 1970年代는 避妊成果인 出産力에, 그리고 1980年代는 事業管理 및 統合側面에 중점을 두면서 事業을 支援하고 調査研究 自體도 발전해 왔다. 따라서 調査內容은 이러한 事業開發 變數를 망라하는 점에서 점진적인 概念化 및 體系化가 이루어졌고, 분석도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國家事業이 調査研究를 기초로 開發된 先例가 되었고, 그 結果는 世界的 成功事例로 지칭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家族計劃事業은 出産力 低下가 이룩된 現狀에서 既存 形態만을 踏襲할 수 없으며, 低出産이 個人 및 家族에 미친 問題點을 해결하는데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調査研究는 먼저 “出産調節의 生活化”를 위한 既存 形態에서 자체의 問題點이 무엇이고, 어떤 점을 補完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出産力 低下가 人工妊娠中絶에 의한 영향이 컸던 점을 고려하면 人工妊娠中絶의 避妊을 통한 豫防方案과 避妊 自體의 副作用을 줄이는 데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다음은 出産力 低下가 女性과 家族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女性의 役割開發과 아울러 老人扶養을 위한 體系開發, 그리고 各種 家族問題의 豫防 및 治療 그리고 家庭生活의 計劃과 合理化 方案을 모색하는데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세제는 이러한 研究接近과 아울러 家族計劃事業이 시대적 요청에 附合되는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政策을 支援하고 政策變化에 따른 새로운 形態의 事業이

效率的으로 推進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第2 段階의 研究領域도 開發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家族計劃研究院, 韓國 出産力調査: 1次報告書, 1977.
- 高甲錫 外, 韓國婦人의 出産力 및 家族計劃實態 調査報告, 國立家族計劃研究所, 1970.
- _____, 韓國避妊普及實態調査, 家族計劃研究院, 1980.
- 孔世權 外, 韓國家族計劃事業, 家族計劃研究院, 1980.
- _____, 韓國家族構造의 變化,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 _____, 韓國家族機能과 役割變化,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0.
- 大韓家族計劃協會, 家協三十年史, 1990.
- 文顯相 外, 出産力과 家族計劃: 1971年 出産力 및 人工妊娠中絶調査報告, 家族計劃研究院, 1972.
- _____, 1982年 全國家族保健實態調査報告,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2.
- _____, 1985年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査,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5.
- _____, 1988年 全國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 調査,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 朴丙台 外, 全國出産力 및 家族計劃評價調査, 家族計劃研究院, 1978.
- 卞鍾和 外, 家族計劃 및 出産力實態調査, 家族計劃研究院, 1979.
- 保健社會部, 家族計劃, 1964.
- _____, 全國家族計劃實態報告, 1965.
- _____, 全國家族計劃實態調査報告, 1966.
- _____, 全國家族計劃實態調査報告, 1968.
- 宋建鏞 外, 全國家族計劃 및 出産力調査, 家族

- 計劃研究院, 1974.
- アジア人口・開發協會, 日本の人口と家族, 人口と開發シリーズ9, 1989.
- Cowgill D. O., "The Theory of Population Growth Cycl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949.
- Freedman, Ronald, The Sociology of Human Fertility: An Annotated Bibliography, New York: Irvington Publishers Inc., 1965.
- Davis, Kingsley and Judith Blake, "Social Structure and Fertility: an analytic framework",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1956.
- Population Problems Research Council, Summary of Twentieth National Survey on Family Planning, Tokyo: Mainich Shimbun, 1990.
- U. N.,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Fertility Decline: A Review of Some Theoretical Approaches, ST/ESA/SER, R/102, United Nation, New York, 1990.

〈Summary〉

Changing Pattern of National Family Planning and Fertility Survey in Korea

Seung-Kwon Kim*, Sae-Kwon Kong**

There have been fourteen surveys on family planning and fertility, since the 1960s, for which the research and field implementation have been coordinated. The surveys focused on providing contraceptives in the 1960s ; on fertility as a consequence of family planning in the 1970s, and on management and integration in the 1980s. The contents of these surveys reflected the major elements in the development of family planning projects : conceptualization and analytical diversification which were thereby made possible. In this way, the Korean experience presented an exemplary case in which state activity was firmly grounded upon sound research. The Korean case has been praised 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in the world.

Mor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family planning research in the last three decad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1960s, research was interested in respondents' contraception knowledge and practice rate and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contraceptive knowledge and the practice rate. From the analysis of these relationships target groups were classified and project directions were established. That is, we recommended providing

education for those who did or did not practice contraception with no appropriate knowledge of contraception and services and providing continuous supervision for those practicing contraception with or without the appropriate knowledge. Major research emphasis in the 1970s and 1980s was measuring fertility and finding obstacles or problems to family planning projects. The results of each survey within the last two decades seemed useful in developing family planning project and establishing new directions, as practicing contraception, induced abortion and the phase of marital changes were analyzed as the main factors affecting the fertility decline. New research ideas are developed by analyzing present conditions and family planning project problems, but the new approaches were held within the project boundaries. Projects on urban poverty, the population education program, and sound policy implications of a low fertility rate were the main contents of the reports in 1970~1989.

Third, considering the comprehensive contents of questionnaires, data were not analyzed thoroughly. Especially, household members' characteristics and contraception/pregnancy histories were

*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Senior Fellow,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not fully analyzed.

Fourth, research report mostly covered the fertility and contraception practice rate trends only. They did not give much attention to the factors which affect fertility rate changes, contraceptive behavior, the induced abortion rate and attitudes toward children.

To sum up, family planning and fertility surveys in the last three decades reflected the situations, problems and goals in each period, but since the fertility level has reached a below-replacement level, it is the right time to think about changing family planning project goals from reducing the fertility rate to learning about the impact of a low fertility rate on the individual and the family system. To understand and solve problems in achieving self-regulation of birth, we should,

therefore, give priority to understanding and overcoming obstacles rather than just to reducing fertility.

To achieve this self-regulation specific problems should be considered. As induced abortion is found to be one of the major factors in reducing the fertility rate, we should consider preventing induced abortion through contraceptive education, continuous supervision of contraception services and reducing the side-effects of contraception. Second, considering the impact of a low fertility rate on women and the family, we should consider developing women's roles, preventing and curing family problems and rationalizing family life. Finally, the government must support the pursuit of new family planning projects in accordance with social demand.